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승전을 향하여 앞으로 7일

96홍해작전이 중반을 넘어섰다.

계속 참가하는 성도들 중에서는 다음 주일 승전감사에배를 앞두고 이미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승전보고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기도요청카드를 이용하여 기도제목을 나누며 교제하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번 홍해작전의 부참모장인 박철훈 장로는 해를 거듭할수록 모이고 기도하는 일에 진보를 보이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 “이 기간을 기대하며 특별한 결심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적극적이고 성숙된 자세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11일째를 맞는 홍해작전의 행진을 이끄는 힘은 말씀과 기도의 두 바퀴이다. 성도들은 새벽마다 사도행전, 에레미야, 여호수아, 시편, 빌립보서, 이사야서 등을 통해 기도의 정의와 중요성, 기도의 구체적인



홍해작전은 말씀과 기도의 작전

는 복을 누리게 된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교회를 우리는 은과 금이 아닌 기도와 믿음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음 주일은 96홍해작전 승전감사의 날이다. 새벽에는 온 교우가 종진군을 하며, 찬양예배는 승전감사에배로 드리게 된다.

방법과 응답의 확신을 배우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에 힘쓰고 있다.

특히 “기도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라는 주제와 “① 기도의 벽돌을 나도 함께 쌓는다 ② 능력의 지팡이로 장애물을 제거한다 ③ 온전한 헌신으로 주의 전을 세운다”라는 행동강령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이번 홍해작전에 성도들은 일곱가지 기도제목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이종윤 목사는 지난 주일 역대하 2장 1 ~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전을 짓는 자의 복’이라는 설교를 통해 “성전을 짓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믿음이 커져가며, 소망의 삶을 살게되

권사회수련회, 목회자·김치세미나 봉사자위로회

24(월)·25(화) 1박 2일간, 수안보에서

권사회수련회 및 목회자신학세미나·김치신학세미나의 봉사자위로회가 24일부터 1박 2일간 수안보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의 초빙자인 당회장 이종윤 목사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 행한 제 9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에서 수고한 봉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표

시로 이번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봉사자들은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의 일에 동참한 보람을 안고 모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이 목사는 “봉사자들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하는 우리교회의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권사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이종윤 목사와 이순환 목사를 강

사로 하여 좀더 성숙한 봉사자의 자세를 배우고 다짐하는 시간도 갖게 될 예정이다.

행사장으로서의 출발은 24일 오전 9시 교회 앞에서 하며 활동이 자유로운 간편한 복장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권사회 회장단에 하면 된다.

이단, 얼마나 아십니까?

장년부 특강

II부 예배 후 1층예배실

장년부 (부장: 김대호 장로)는 이단에 관한 특별강좌를 오늘부터 한달 예정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등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단의 문제를 심

도있게 다루게 된다. 강사는 김영한 목사(장년부 지도)로 1층 예배실에서 II부 예배가 마치는 12시 30분에 시작한다.

특강을 주관하는 장년부에서는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미혹되기 쉬운 이단의 정체를 파악하고 이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길을 찾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6월 학습·세례식

19일(수) I·II부 예배 시

19일(수) I, II부 예배 시에 6월 학습·세례식을 거행한다. 이를 위한 교육은 17일(월) 오후 7시에 3층 찬양대실에서, 문답은 18일(화) 오후 7시에 4층에서 갖는다.

문의는 새가족부나 교구 담당 목사에게 하면 된다.

창세기
강해



망각의 축복

(창세기 41장 50 ~ 52절)

이종윤 목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 풍년 후 다가올 7년 기근을 준비하는 중에 요셉의 가정 문제가 등장합니다. 온(On)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거나 특성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아담은 흙 또는 먼지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창2:7). 하와 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 라는 뜻이 있습니다(창3:20). 요셉의 아들 므낫세 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 집 일을 잊게 하셨다” 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셨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1. 기억할 것을 기억해야

좋은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의 기초는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에게 대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벧후3:5)고 했습니다. 특히 성경은 하나님이나 그의 계명을 잊지 말 것을 강조하십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할 때를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입니다(신32:18, 사17:10, 렘3:21, 렘18:15, 겔23:35).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말지어다”(시103:2)라고 했고, “청년의 날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전12:1)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2. 죄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한 어떤 죄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미쁘심과 의로우심에 근거한 것입니다(요일1:9).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그 죄를 고백한 이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그 죄를 다시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렘31:33 ~ 34).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지(全知)하신 분이라는 사실과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암8:7).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잊으십니다(렘31:34). 그리스도 예수께서 돌아와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고백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죄는 고백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잊으려 하고, 힘들여 기억하려해도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잊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죄를 잊는 것은 중요하며 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옛 사람은 지나갔고 고백된 모든 죄와 악은 용서받은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도 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의 슬픔과 고통은 잊어야 합니다. 요셉의 첫 아들 므낫세의 이름에는 과거의 고통과 아버지 집 일들을 잊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요셉이 잊은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고통과 슬픔입니다. 물론 요셉이 과거의 고통을 모두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버림받고 절망에 처한 결과 그의 고난들이 이제는 더 이상 고난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빌3:12 ~ 14)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잊어버린 뒤엎 것이란 성경 지식이나 기독교 신앙교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요셉처럼 과거에 당했던 고난들(고후6:4 ~ 10)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저해되는 것이라면 과거 축복도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중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을 때 그들은 다시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일은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고기를 먹던 것을 추억하며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축복도 감사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새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과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전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적당한 망각이 없이 전진은 없습니다.

3. 하나님을 기억해야

요셉은 고통받은 땅에서 창성케 하신다는 뜻으로 둘째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의 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일에 그로 열매를 맺게 하시되 풍성히 맺게 하셨습니다. 시편 1편에 나타난 복있는 사람의 표본이 바로 요셉입니다.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은 현재의 풍성한 삶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자랑만 하지 말고, 욕된 과거에 대해 좌절만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진하십시오. 포도 나무에 붙은 가지(요15:5, 8)처럼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항상 과실을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지붕 위에 난 풀”

높은 자리나 탐하고 남의 눈에 띄어 나타나기를 좋아하며 스스로 잘난 체하는 사람은 마치 지붕 위에 난 풀과 같아서 보기에 어설프다. 모든 것은 제자리가 있고 알맞아야 어울린다.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덤비는 모습은 지붕 위에 난 풀처럼 보기에 역겹다.

풀이라고 해서 다 쓸모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가축을 위한 목초나 사람을 위한 식용도 있고 농사를 짓기에 필요한 퇴비도 있다. 그러나 지붕 위의 풀은 퇴비나 사료 심지어 땀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나 사람을 위해서 쓸모없는 이가 된다면 불행한 일이다.

“뿌리가 깊지 못하고 그 양도 얼마되지 않는 지붕 위의 풀보다는 어둠을 밝히는 등잔의 기름을 짜내는 모퉁이의 감람나무가 되게 하소서.”

■ 다일공동체를 다녀와서 - 대학부

삶과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대학부에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훈련하기 위해 봉사의 기회를 갖기로 하였다. 봉사할 곳은 다일공동체. 언젠가 '무료로 밥을 나누어 주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곳이었다. 청량리역에서 물어 물어 다일공동체까지 이르는 동안 내 마음 속에는 복음전도의 열정보다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단순한 의무감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 편이 더 솔직할 것이다.

도착해보니 그곳의 환경은 과연 좋지 못했다. 공간은 너무도 좁았다. 그러나 다일공동체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비전은 너무도 큰 것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런 조건없이 배고픈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과 의료진료가 다일공동체 사람들의 주된 일이었다. 음식은 매일 정오와 오후 1시 나누어주며 그에 앞서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들의 소박한 소망은 아무 말없이, 그리고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랄 뿐이었다.

우리는 그곳 전도사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미소짓고, 안마 해드리는 일"을 시작했다. 우리가 아무리 친절할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도 오직 밥을 얻는 것만이 목적인듯 대부분 무표정하여 마음이 안타까웠다. 지친 삶 때



문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듯한 모습, 심지어 도시락까지 싸드려도 불평과 원망하는 모습, 거기서 드시는 점심이 하루의 처음이자 마지막 식사인양 계속해서 드시는 할머니의 모습... 그분들의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그분들을 향해 특별한 계획과 섭리와 위로의 방법을 가지고 계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언제일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들이 녹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베푸는 손길에 있었다. 1004명의 다일공동체 회원이 대부분 넉넉치 못한 분들이라는 것, 어떤 분은 자기 집도 없이 사시면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몇 년째 매일 2포대의 쌀을 보내주시는 분도 계신다고 했다. 그분들의 봉사는 단지 베풀만한 환경에 있거나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만

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다일공동체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사랑'이라는 것에 무감각했고 베푸는 데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그들은 묵묵히 날마다 하는 일을 할 뿐이었으나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는 그들 영혼의 큰 외침을 들었다. 황지영 회원

■ 지원교회방문기 - 바울 제 1선교회

농촌교회는 이 땅의 그루터기

96 홍해작전이 시작된 6월,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지원교회를 향하여 왕복 700km가 넘는 길을 떠났다. 지난달 월례회에서 바울 제 1선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 교회들을 방문하기로 가결하고 한달간 기도로 준비해 온 여정이었다.

깨끗한 공기의 보고(寶庫)로 남아 있는 소백산 주령의 천길 단애를 한 걸음에 내달아 출발한 지 다섯 시간이 넘어서야 첫 방문지인 영주시 단산면의 병산교회(재적 40명)에 도착하였다. 교회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45세 이상의 노장년들이며, 그나마 대부분 자립이 어려운 소농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우리의 지원과 방문은 그곳에 큰 격려가 된다는 말도 들었다.

다음 목적지는 향토예비사단 안에 있는 충성교회와 영주시 이산면에 있는 석암교회(재적 25명). 그곳도 성도들이 대부분 60세 이상의 노령자였다. 젊은이들이 출석하던 때는 악기를 갖춘 찬양대도 있었다고 하나 이제는 젊은이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 악기는 군인교회로 옮겨져 활용하고 있다. 25년을 그곳에서 봉직하고 있다는 전도사님은 목회활동 외에도 트럭을 구입해서 마을의 영농자재 구입과 생산농산물 판매를 위한 수송 등 마을 경제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나날이 기우는 교회와 인근 폐교된 초등학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농촌의 단면을 보는 것같이 안타까웠다.

마지막 방문지인 안동시 와룡면의 명계교회(재적 35명)는 42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로 그간 두번이나 문을 닫은 적도 있다고 했다. 5년 전만 해도 8명이 출석하던 교회가 지금의 전도사님이 부임한 이후 오늘과 같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었다.

우리가 본 농촌교회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이농현상으로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농촌현실에서 출발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



주민은 노령화되고, 마을은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에 불타는 목회자들이 그곳에서 곳곳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숙연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폐허의 자리에 그루터기같이 남아있는 그분들을 통해 민족복음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100교회 운동이 '사랑은 나누면 배가 되고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되며, 실제적으로 농촌 목회자들에게 영적, 물질적인 활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금 깨달았다.

이날 지원교회를 방문하고나서 우리는 또하나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우리교회의 새예배당은 민족교회의 기도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방문하는 지원교회마다 우리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노라며 큰 관심을 보였다. 그곳 목회자들은 "서울교회는 자기 집도 없이 월세방(?)을 얻어 사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나누기에 힘쓰며 선한 일에 부한 교회이니 훌륭한 전을 지어 더 큰 일을 하라"고 축복해 주었던 것이다. 홍해작전 첫날 행정이었다. 나중영 집사

■ 본대로 느낀대로

한알의 밀알이 썩어

김태기 (장로, 소망부 부장)

제가 살던 동네에 주민 6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당을 짓기로 하고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나이 지긋한 성도 한 분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바칠 것이 이

“한 성도의 헌신은 예배당 헌당과 더불어 좀처럼 보기도문 교회연합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배당 건축은 성도의 수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더이다.”

세운 날이기도 했습니다. 성전도 짓고, 교회가 연합하고, 개척교회를 세워 민족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해 예배당 건축은 성도의 수가 많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물질

이 많다고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성도의 헌신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성군 다윗에게도 허락치 않으셨던 예배당 짓는 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교회가 연합하는 아름다운 광경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교회설립 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하게 해 달라고 쉬임없이 간구해 왔습니다. 우리교회가 대지구업을 할 때 너무나도 전격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당 짓는 일이 물질이나 기술이 아니라 기도와 헌신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홍해작전을 통해 새벽마다 무릎을 연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기공식, 공사의 모든 과정, 그리고 헌당하기까지 남은 고비고비를 기도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앞으로의 일들도 "크고 비밀한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는?

-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 기도는 능력이며, 헌신이며, 투쟁이다.
- 기도는 인간 영혼의 갈망이다.
- 기도는 새 힘을 얻는 원천이다.
- 기도는 영혼 구원의 능력이 있다.
- 기도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부흥의 비결이다.
-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
- 기도는 환란을 극복하는 힘이다.
-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홍해작전 기도제목

우리로 주의 전을 세우도록...

- † 기도의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 † 이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게 하옵소서.
- † 뜨거운 믿음을 갖게 하소서.
- †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옵소서.
- †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되심같이 우리도 하나되게 하옵소서.
- †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 †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홍해작전 행동강령

- ① 기도의 벽돌을 나도 함께 쌓는다.
- ② 능력의 지팡이로 장애물을 제거한다.
- ③ 온전한 헌신으로 주의 전을 세운다.

홍해작전 표어성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33:3).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매주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4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2.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할 수 있도록
3.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해
4. 농어촌 교회들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